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11월 21일(금)

...(윤력 10월 2일)...

Пятница

21 ноября 2025 г.

№ 45 (1216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 22일은 러시아와 기타 국가들에서 비공식적으로 '아들들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공청회 참가자들, 사할린주 예산안 지지

지난 11월 19일 사할린주 정부 청사에서 행정부 대표, 의원, 연방 기관 관계자들, 특별 군사 작전 참전 용사들,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2026년 사할린주 예산 및 2027년, 2028년 주 예산 계획기간에 관한 사할린주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행사 진행은 소셜 네트워크와 TV 방송을 통해 모든 희망자가 시청할 수 있었다.

사할린주 정부 총재 알렉세이 벨리크는 개회사에서 이 행사의 목적이 앞으로 3년간 지역의 주요 재정 문서의 핵심 매개변수를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내린 결정이 섬 주민들의 이익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주요 재정 문서는 시민 생활 개선, 인프라 개발 및 지역 주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 이행과 2030년까지 국가 발전 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3년간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규모는 617억 루블리에 달한다. 2026년에는 교육, 보건, 인구 지원, 문화 및 스포츠에 약 1조 900억 루블리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프로그램 지출의 53%를 차지한다. 예산의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바로 특별 군사

작전 참가자들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모든 사회적 의무를 무조건 이행하는 것이다. 2026년 지원 조치 전체로 200억 루블리 이상이 계획되어 있다"고 벨리크 총재가 밝혔다.

2026년 주 예산의 자체 수입은 이전 년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로 세계 오일가스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재정 문서는 투자 지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3년 동안 사회 분야, 교통 및 공공 인프라, 주택 분야에서 84개의 시설이 건설 및 재건될 것이다. 주 정부 총재에 따르면, 이는 우리 섬의 삶의 질을 꾸준히 높이고 경제 및 사회 분야의 추가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국가-민간 파트너십 일환으로 사할린테크 캠퍼스의 과학-교육 단지 건설이 계속될 것이다.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편안한 학생 기숙사에는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7개의 의료 시설이 세워질 것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3개, 홈스크, 우글레고르스크, 마카로브, 돌린스크에 4개의 진료소가 건설된다. 올가 로파티나 사할린주 재정부 장관은

"2026년도 주 예산 수입은 1905억 루블리로 전망된다. 2027년에는 2019억 루블리, 2028년에는 1936억 루블리가 될 것이다. 지출에 대해 말하자면 2026년 지출은 2176억 루블리이며, 2027년에는 2304억 루블리, 2028년에는 2211억 루블리가 될 것이다. 예산은 지역 사회경제 발전의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해 자원을 집중시키는 데 방향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3년 동안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는 1조 9600억 루블리를 초과할 것이다. 그중 1500억 루블리 이상은 국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것이다.

공청회 참가자들은 '자유 질의' 시간을 통해 예산안 작성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 예를 들어, 친환경 차량 도입, 노후 주택 철거, 임대 주택, 지역 내 고급 인력 유치 방안, 그리고 학교 구역 환경 개선 등에 관한 것이었다. 모든 질문에 대해 포괄적인 답변이 제공되었다.

공청회 참가자들은 2026년 및 2027년, 2028년 계획 기간에 대한 사할린주 예산안을 지지하고, 주 의회(두마)가 이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단신

사할린주 최고의 사례, '린 기술' 포럼에서 소개

지난 11월 17-18일 이틀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에서 극동 포럼 '린 기술'이 진행되었다. 효율성 향상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 20개 이상 지역 및 벨라루스 공화국 대표들이 참여했다. 포럼의 주요 목적은 지역간 경험 교류와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할린 주는 러시아에서 린 기술 적용의 선두주자로서 이미 네 번째로 이 포럼을 주최했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개회사에서 "우리의 지역 관리 시스템은 린 문화 원칙에 기반한다"며 "린 기술 도입으로 진료 예약권이 35% 증가하고, 특별 약품 발급 기간이 2개월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가 많으며, 다른 지역과 경험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사할린 주에는 린 기술을 적용한 40개 모범 기관이 조성됐다. 포럼 참가자들에게는 의료, 사회 복지, 교육 분야의 최고 사례와 인사 과정 자동화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및 무인기 활용 방안도 소개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블라디미르 산기의 소설 '팅그라이'

발표회 개최

지난 11월 13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스톨리차>비즈니스센터의 콘그레스홀에서 유명 사할린 작가이자 최초의 닙흐 문학가인 블라디미르 산기 탄생 90주년을 맞아 닙흐어로 최초 발간된 신작 소설 '팅그라이'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팅그라이'는 노글리키 도서관의 주도로 기획된 '추장의 노래' 시리즈 세 번째 책이다. 이 책은 8개 언어(러시아어, 닙흐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야쿠트어, 키르기스어)로 출간되어, 특히 닙흐 언어와 문화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날 사할린주 민속창작센터 소속 '테아트르(Театр Ли)'스튜디오(감독 리 알렉산드르)는 리 알렉산드르 감독의 '인간'이란 연극을 처음으로 무대에 올렸다. 리 알렉산드르 연출의 이번 작품은 블라디미르 산기의 실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지역 치과 진료소, 최신 장비 15대 도입

'장수하고 활동적인 삶' 국가프로젝트의 '모두를 위한 건강' 프로그램 일환으로 사할린주 치과진료소에 최신 치료 장비 15대가 도입됐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의 진료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새 장비는 강력한 LED 조명, 부드러운 체어 이동, 직관적인 조작 계통 등 기존 모델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갖췄다. 15대 중 10대는 진료소 본원에, 나머지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내 본원에 설치될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구독료는 **885,9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국립남도국악원, 사할린동포 대상 국악 강습 실시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 소속 전문가들이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정승훈)의 초청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사할린 동포와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악 무용과 민요 강습을 진행했다.

강습에 앞서 정승훈 교육원장의 환영 인사와 박정경 남도국악원장의 전문 강사 소개 및 인사말이 이어졌다. 정원장은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학생들과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 타악기팀이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여러 차례 무용과 사물놀이 등 연수를 받은 점, 그리고 사할린한국교육원이 남도국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박정경 원장은 이번 강습을 계기로 사할린동포 대상 국악강습을 정례화하고,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지역까지 강습을 확대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박정경 원장은 "러시아 측에서 워낙 저희 프로그램에 참가를 많이 해주시고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현지에 계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싶었고, 또 얼마나 어떻게 우리 국악이 알려져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라고 방문 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에트노스' 학교 같은 경우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현지 상황도 직접 보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싶어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원장은 협력 방안에 대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코로나 전까지는 저희 남도국악원에 연수를 왔었는데, 직항이 없어지면서 오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침 원장님들도 만나 보니까, 저희가 감사 한 분을 현



지로 과전해 드릴 수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교류를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제안하며, "꾸준히 매년 저희가 초청하든, 강사를 보내든 지속적인 교류를 하자는 것이 이번 방문의 큰 목적 중 하나입니다."라고 강조했다.

19일(수)에는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실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한국교육원 문평길 원장,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이창훈 원장과 박정경 남도국악원장이 만나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틀간 교육원 강의실에서는 성악단 수석인 양혜인 씨가 사할린한국교육원 평생학습 교실 주부반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네웰스크 등 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한국 민요인 아리랑과 남도 민요를 강습했다. 이번 강습에서는 본조아리랑, 해주아리랑, 강원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과 남도 민요 '동해바다'를 배우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악 무용 전문가 박기량 씨는 11월 19일(수)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부채춤과 소고춤 중심의 국악 무용 강습을 실시했다.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 무용단, '희망' 무용단, 코르사코브 한글학교 한국 무용반, 은하수 한글학교의 한국 무용단 등이 참석했으며, 블라디보스토크교육원과 극동연방대학 풍물패 지

도교사, 하바롭스크 교육원 지도교사도 함께 자리를 빛냈다.

11월 20일(목)에는 박기량 안무가가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교장 안나 위로호와)를 찾아 한민족 무용을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펼쳐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또한 박정경 원장은 '에트노스' 학교 지도부 및 교사들과 만나 앞으로의 교류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들의 소감도 현장의 감동을 전해주었다. 성악가 양혜인 씨는 "우리 동포분들께 민요를 강습하게 됐는데, 아리랑 같은 곡조를 부르셨을 때 가슴이 먹먹하고 감회가 남다르더군요. 다들 한국말도 잘 하시고 본조 아리랑이든 밀양 아리랑이든 너무 잘 따라오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음들을 잊지 않으신 것 같아서 모두 흥겹게 웃으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저희가 와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러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안무가 박기량 씨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한국의 것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할린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현지에 와서 '사할린'이라는 글자를 보니 저희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전에 강제 이주하신 분들의 혼이 남아 있을 이곳이 앞으로는 아프지 않은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렇게 찾아가시는 데 저희 기관이 작은 도움이나마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20일(목) 저녁, 남도국악원 대표단은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특수 군사 작전 참전 용사 추모 무술 대회가 열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레오노브 명칭 제13회 중학교에서 특수 군사 작전 지역에서 군 의무 수행 중 전사한 본교 졸업생 예브게니 루카세위츠와 알렉세이 차셰브를 추모하는 대규모 무술 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몇 가지 종목에서 진행되었는데, I.F.T.(국제태권도연맹) 및 G.T.F.(글로벌 태권도연맹) 태권도, 합기도가 포함되었다. 행사 조직은 레오노브 제13회 학교와 I.F.T. 태권도 및 합기도 스포츠 연맹이 맡았다. 이 경기는 전러시아 사회 운동 '러시아의 아버지들' 사할린 지부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교육국의 지원으로 개최되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미래의 조국 수호자를 양성하기 위해 이 대회를 개최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힘과 지식을 보여줄 훌륭한 아이들이 모였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이 러시아의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애국심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오스트로브'무술 센터의 지도자 안 수학씨가 언급했다.

이번 대회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구역을 대표하는 모든 연령대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그들 중 다수에게 무술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생의 학교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турнир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памяти бойцов СВ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базе школы № 13 им. П.А. Леонова состоялся масштабный турнир по боевым искусствам, посвящённый памяти выпускников школы Евгения Лукашевича и Алексея Чашева, погибших при исполнении воинского долга в з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шли в нескольких дисциплинах: тхэквондо МФТ и ГТФ, хапкид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и школа № 13 им. П.А. Леонова и спортивные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МФТ и Хапкидо. Турнир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илиал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Отцы России" и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Мы проводим этот турнир, чтобы зарядить детей мужеством, воспитать будущих защитников Родины,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Ан Сухаги. -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достойные ре-

бята, которые проявят свои силы и знания. Наша задача - воспитать в них патриотизм, чтобы они стали достой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России.

В турнир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спортсмены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не тольк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о и различные районы области. Для многих из них боевые искусства - это не просто увлечение, а школа жизни.

유즈노사할린스크 주산기 센터에서 손바닥 크기의 아기들의 날을 기념

유즈노사할린스크 주산기 센터에서 '손바닥 크기의 아기들의 날을 기념했다.

센터에서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들의 보살핌 덕분에 어떻게 성장하고 건강해졌는지를 보여주었다.

11월 16일 (일) 섬 수도의 주산기 센터에서 어린 환자들과 그들의 생명을 위해 싸웠던 의사들이 만났다. 세계 미숙아의 날을 맞이하여 그들의 연약함과 강인함을 되새겼다.

'손바닥 크기의 아기들'은 미숙아들에게 애정을 담아 부르는 호칭이다. 의료진과 배려가 깊은 부모들의 도움으로 성장한 이들은 주산기 센터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사회 단체들은 이들에게 담요, 뜨개질 양말, 적응형 장난감을 선물했다. 기념품들은 지지를 상징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산전 센터에서 의사들이 천 명 이상의 아기들을 구하고 출산을 도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День «детей размером с ладошку» отметили в перинатальном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ень «детей размером с ладошку» отметили в перинатальном центре Южно-

Дети, которые родились недоношенными, показали, как они выросли и окрепли благодаря заботе взрослых. В воскресенье, 16 ноября, в перинатальном центре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встретились маленькие пациенты и врачи, которые боролись за их жизни. В День недоношенных детей вспомнили об их хрупкости и стойкости.

Недоношенных детей ласково называют «детьми размером с ладошку». Повзрослевшие, выхуженные медработниками и заботливыми родителями, они пришли на праздник в перинатальный центр.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подарили им пледы, вязанные носочки и адаптивные игрушки. Памятные сувениры символизируют поддержку.

Важно ответить, что за время работы перинатального цен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рачи спасли и помогли выходить более тысячи детишек.

사할린의 '고르니 워즈두흐', 전국 국가상 한 부문에서 우승

제4회 '러시아의 산' 전국 시상식 결과에 따라 사할린 스포츠 관광 단지 '고르니 워즈두흐'가 '극동 연방 지구 최고의 스키 리조트' 부문에서 우승했다.

또한 이 스포츠 관광 단지는 "러시아 최고의 스키 리조트" 부문 2위, "가족 휴가를 위한 최고의 스키 리조트" 부문 3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프라 시설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작업, 즉 개선된 슬로프, 확장된 휴게 공간, 양질의 서비스, 안전성 강화, 스포츠 공간 개발 및 새로운 행사 조직에 대한 성과이다. 우리는 '고르니 워즈두흐'를 투표로 지지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우리가 성장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모든 손님에게 편안하고 현대적이며 흥미로운 리조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르니 워즈두흐' 직원들이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ный воздух"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одной из номинаци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емии

По итогам IV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емии "Горы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ий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Также островной СТК занял следующие места в номинациях:

- 2 место — "Лучший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России"
- 3 место — "Лучший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для семейного отдыха"

"Эти результаты стали возможны благодаря большой работе по развит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улучшенные трассы, расширенные зоны отдыха, качественный сервис, повыш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развитие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ок и организация н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Мы благодарим каждого, кто поддержал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воим голосом. Ваше участие помогает нам двигаться вперёд, создавать новые проекты и делать курорт комфортным, современным и интересным для всех гостей. Спасибо, что вы с нами", - говорят сотрудники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8면에 계속)

사할린 의원들, 2026년을 '행복한 모성의 해'로 지정 제안 지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지방자치체 의원들을 위한 사할린 지역 포럼이 개최됐다. 회의 결과 의원들은 사할린 주지사가 제안한, 2026년을 사할린 지역 '행복한 모성의 해'로 선포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포럼에 참석할 약 170명의 의원들을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지사가 환영했다. 그는 올해 사할린 지역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며, 2027년부터는 주택 대수리 프로그램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주로 마당, 현관, 지하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공사가 끝나면 자원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매년 400채의 주택을 수리할 예정이다. 새로운 주택, 사회복지시설, 교육·문화·체육 시설도 활발히 건설 중이며, 도시와 마을의 모습이 변화하며 광장과 공공 공간이 생겨나고 주택 벽에는 선명한 벽화가 그려지고 있다.

리마렌코 지사는 "우리의 활동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며, 그들의 신뢰가 커지는 것을 보고 있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 주민들은 이미 실제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다.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고, 도로와 공공 인프라가 재건되며, 우리의 도시와 마을이 변모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의 큰 팀이며, 우리의 임무는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할린 지역은 러시아의 전초기지이며, 우리는 변화하는 새로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할린 지역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는 인구 문제 해결이다.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 내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과 마찬가지로 2026년도 '행복한 모성의 해'로 선포될 예정이다. 동명의 프로젝트는 1년간의 운영기간 이미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여성을 위한 의료 및 사회복지 부서의 업무가 잘 되었다. 해당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해 매년 섬에서 7,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에서는 여성 지원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500개 이상의 기업이 모성을 기업 가치에 포함시켰으며, 임신 부를 위한 의료 서비스 목록도 확대되고 있다. 사할린에 포민 클리닉 지점이 문을 열며 인구수정 기술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비 엄마들을 돕기 위해 '행복 안내자' 제도가 생겼으며, 보모 제도도 발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사할린에 자격을 갖춘 보모가 120명이 생길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여성들이 임신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 휴가 동안 전문성을 유지하고 경력과 모성을 성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있다.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덕선

관리번호	953873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성명	김덕재	한자	金 德 在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870)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강원도 통천		

공훈록

김덕재는 대한제국 때 육군 보병 정위를 지냈으며, 1900년경 러시아의 남부 우수리 노우키에프스코예로 이주하여 이범윤(李範允)의 휘하에서 국권회복, 항일독립운동을 하였다. 1919년 2월 동지에서 2회에 걸쳐 반일사상을 고취하는 강연을 하였다.

리마렌코 지사는 연설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 지역 계획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사할린에 의료 장비 조립 및 유지보수를 위한 서비스 공간도 생길 예정이다.

또한, 지역에서는 특별 군사 작전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전선으로는 물자와 특수 장비가 정기적으로 보내지고 있다. '조국 수호자' 재단 지부와 '조국 군사 가족 위원회'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영웅들"이라는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어 55명이 정부 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있다.

리마렌코 지사는 "이 프로젝트 이름은 진정한 대의명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선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이 분야에 대한 훈련을 이 일을 진행하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군인들의 사회 복귀 문제는 우리에게 최우선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며칠 전에는 리마렌코 지사가 특별 군사 작전 참전 용사들과 젊은 가족들을 위한 지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6년도 그들을 대상으로 극동 모기지 지원금 40만 루블리가 지급될 예정이다.

포럼은 전략 회의로 마무리되었다. 지방자치체 관계자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와 국민 간 신뢰 강화를 위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연금자들을 지역 환경 미화, 공공 장소 질서 유지 및 감시,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시키는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아니와 시장 스웨틀라나 쉬웨츠는 유치원에 야간 교실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이 지방자치체는 가족 가치 관념을 대중화하기 위해 여러 신혼 부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결혼식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가장 논의가 많았던 주제 중 하나는 청년 정책 형성과 성장하는 세대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여건 조성이었다. 포럼 참가자들과 대화하며 리마렌코 지사는 정부가 이미 교육-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클러스터들은 지역의 주요 기업, 대학 및 전문대를 하나로 모아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시장들과 의원들로부터는 특별 군사 작전 참전 용사 지원, 아이들의 애국심 함양, 주택 및 공공 서비스 분야의 공공 감독 활성화에 대한 제안도 들어왔다.

(사할린주정부 자료에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국제 학술대회 《사할린주와 한반도: 이니셔티브·프로젝트·성과》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사할린한인 관련 발표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아래에 유일하게 온라인으로 발제한 KIN (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대표의 발표문을 게재한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인 기념사업과 한·러 교류 활성화

KIN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최상구

서론

1999년 창립한 KIN(지구촌동포연대)는 2004년부터 사할린 한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입니다. 저희는 일관되게 “역사와 인권”의 관점에서 재외동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사할린 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사할린 주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초청을 위해 수고해주신 사할린 한인협회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9월에 러시아 대사관이 주최하는 “전쟁 종전 80주년 - 한반도 해방과 그 날을 기억하며” 사진전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러시아 그림 전문 갤러리 가르즈나 (Gallery Kartina)에서 전시하였는데, 극동지역에서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한 러시아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그만 전시도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느끼면서 러시아에서도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는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폭 넓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이후 추진가능한 기념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한·러시아 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I. 사할린한인 역사의 복원 및 연구조사의 필요성

1. 사할린 한인 역사 복원

사할린과 쿠릴 섬들에 기반한 한인들의 역사는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사할린 한인은 원동 지역의 역동적인 역사 속에서 매우

복잡한 이주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시작된 한인들의 역사는 단순한 이주사를 넘어,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러시아 혁명기에 북사할린에서 남사할린으로 이동하는 등 태평양 전쟁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강제 동원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사할린 한인의 역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930년대 이전 사할린 지역의 한인들 이주와 거주, 그리고 사할린 각 지방으로 한인들이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들, 1937년 북사할린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의 역사, 소련시대에 한인들의 역사 등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할린 한인은 한민족의 동포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살고 있는 러시아 국민이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의 역사로 출발하였지만, 이제 사할린 뿐만 아니라 러시아 곳곳에 자리잡고 살아가는 러시아 국민인 사할린 한인의 역사에 대해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관심을 갖고 함께 연구와 조사를 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를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사할린 한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은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제 우리는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복원하고 이를 한-러시아 교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7면에 계속)

사할린동포 2세, 모국 체험 위해 방한

사할린동포 2세 24명이 모국을 체험하기 위해 18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방문자들은 사망한 사할린동포 1세의 자녀들(평균 연령 78세)로서 러시아 사할린에서 21명, 기타 러시아 지역에서 3명이며, 24일에 출국한다.

재외동포청은 1세의 사망으로 영주귀국 대상이 되지 못한 사할린동포 2세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모국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부모가 사망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약화된 사할린동포 2세들의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서울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 최근 APEC이 개최된 경주와 문경새재, 단양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문화와 가을 정취를 체험한다. 또한, 국내에 거주 중인 형제, 자매 등 친지들과 재회하는 시간도 갖는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



족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영주귀국 사할린동포가 사할린 등 해외 거주 자녀나 손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모국방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 사할린동포 2~3세 40명이 방한했다.

한편, 사할린 등 해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1세 21명도 이번엔 함께 모국을 찾았다. 본 사업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모국 방문이 사할린동포들이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모국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어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보다 많은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крепили мос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ореей

В столиц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успешно завершилась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инициативы, проекты, результаты».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едшее 13-14 ноября на площадках зала «Симфония» и бизнес-центра «Айхор», собрало эксперт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ласти, бизнеса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тав важной диалоговой платформой.

Уникальность форума заключалась в комплексном подходе, объединившем экономическую и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вестку.

В рамках первой секции —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региона: горизон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участники сосредоточились на конкретных перспективах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одератором выступила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С докладами выступили ведущие научные сотрудники Института Китая и современной Азии РАН Ким Ен Ун и Виктория Самсоно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евразий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Чон Су, министр инвестици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внешних связ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силий Грудев, адвокат Адвокатской палаты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Пак, профессо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Чонбук (г. Чонджу) Чон У Ён, а также профессор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горь Толстокулако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ызв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г-на Пак Чон Су на тему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згляд из Сеул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Приглашенный эксперт представил поэтапные решения для укрепл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вух стран в средне- и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обозначив взаимовыгодные проекты, реализация которых имела бы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для экономик обеих стран.

Не менее значимыми ст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Александра Пака и Игоря Толстокулакова, прозвучавшие предложения о развитии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При этом была отмечена особая ро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исторически являющихся основ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дл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диалога.

Вторая секция,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й капитал региона: наследие как ресурс развития»,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историческому и культурному наслед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Ее модератором выступила заведующая кафедрой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и страноведения СахГУ Инна Корнеева.

Прозвучали доклады ученого секретаря ГБУК СО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Елены Савельевой,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доцента кафедры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Ирины Балицкой, главного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научно-экспозиционного отдела ГБУК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Хай Ок Дя, главного библиотекар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ахОУНБ Ольги Пятницкой и президента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Алексея Чуна. В формате онлайн к дискуссии присоединился директор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а солидарность с зарубежны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Че Сан Гу.

В ходе сессии были затронуты вопросы сохране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ль областных музеев и библиотек, а также аспекты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или совместным мемориальным инициативам и проектам, направленным на укрепление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мероприятия включила показ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режиссера Антона Дока «Местные»,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л участникам нагляд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сторией и современной жизнь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ведение конференции наглядно показало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звит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со странам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вновь подтвердило стату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площадок для этого диалога. По итогам работы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практические ориентиры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й сферах.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Групп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сетила родину предков

18 ноября через аэропорт Кимпхо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прибыли 24 представителя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которых составляет 78 лет. Цель их визита — знакомство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Группа, в которую вошли 21 человек с Сахалина и 3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робудет в стране неделю.

Данный визит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Агентством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совместно с Красным Крес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граммы ст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чьи родители уже ушли из жизни, и кто не попадает под программу репатриации РК. Поездка призвана укрепить их связь с родиной предков и чувство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В программе — посещени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Сеула, недавно принявшего саммит АТЭС Кёнджу, а также в Мунгёна и Танян. Кроме того, у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запланирована возможность встретиться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этот раз вместе с этой группой

в Корею прибы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Сахалине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Данная программ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Корейским Красным Крестом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Японии.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казывает поддержку в программе переезда на ПМЖ на родину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 перемещенным на Сахалин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и их семьям. Такж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ограмма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визитов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для их детей и внуков.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по этой программе страну посетили 40 человек, сообщили. Агентстве.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этот визит поможет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укрепить связь с родиной предков и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частью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 отметил глава Агентства Ким Кён Хёб. Он также добавил, что ведомство продолжит работу по расширению поддержки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вернутьс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пятнадцат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Моему старшему брату Им Джун Хо (임준호!)

Старший брат!

Безжалостное время лишь усмехается над нашей тоской по родной крови, которая становится только сильнее.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вашего письма, в сердце нашей матери осталась лишь горечь сожаления, горе, которое было похоронено в ее сердце слезами и тоской... Старший брат! Я верю, что вы обретете спокойствие благодаря заботе всей нашей семьи 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родине.

Здесь,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у ваших братьев наступила горячая пор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абот, настолько напряженная, что можно забыть о своей матери. Той самой маме, которая говорила, что уйдет, только повидавшись с потерянным сыном. В конце концов...

Когда мама получила ваше письмо, она уже была больна старческими недугами, и, будучи в преклонном возрасте, мы ничего не могли поделать, и ей пришлось навсегда попрощаться с нами. Я не решался сообщить вам эту новость раньше, боясь, что вы слишком сильно опечалитесь, но потом подумал, что вы будете еще более разочарованы, когда приедете и узнаете об этом. Если вам станет легче, отругав меня, недостойного младшего брата..... Сделайте так.

Брат! В могиле, где покоится мама, был упокоен и наш отец. Мы похоронили их с миром на участке, который подготовил наш старший брат из Чхонана(1). Мама прожила чистую и прекрасную жизнь и скончалась на руках своих детей, сыновей, дочерей и внуков — разве это н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того, что она была благословенной матерью?

Брат! Пожалуйста, не горюйте слишком сильно, будьте усердны в жизни, , подготовив свое сердце к возвращению, которого вы и все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так долго ждал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30 лет.

Брат! Это стих из Библии... «Всему свое время, и время всякой вещи под небом...». Так же, как человеку положено однажды умереть, а потом будет суд (2).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благодаря неустанным усилия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Общества по содействию репатриации 'задержан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ахалина, наблюдается большой прогресс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например, было проведено судебное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о по содействию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3).

Брат! Я горячо молюсь, чтобы Господь был с ними и чтобы м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могли испытать радость встречи. Мое сердце уже трепещет от волнения. Я искренне молюсь о том, чтобы поскорее наступил тот день, которого ждут все наши братья и весь народ — день объединения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4) и день, когда мы встретимся 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на Сахалине... Сообщаю дату кончины нашей матери: 3 мая по григорианскому календарю, 22-й день 3-го месяц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4 часа утра...

Старший брат! Надеюсь, что у всей вашей семьи будут счастливые дни и здоровая жизнь.

И, в заключение, желаю, чтобы 30 лет заточения растаяли вместе с возвращением на Родину.

Чхунхон-намдо, Асан-гун, Омок-ри, 1-й район (춘남 아산군 신창면 오목리 1구)

Твой младший брат Им Сун Хо (임순호)

Перевод: Ин Му Хак

Правка: Бя Виктория

Комментарии:

(1) Чхонан (천안) — город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ходится в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Чхунхон. Расположен в 80 км к югу от Сеула.

(2) Автор упоминает строки из Библии, ч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он — христианин. Христианство впервые проникло в Корею в XVII

в. не через миссионеров, а через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круги. В XVII–XVIII вв. корейские ученые-конфуцианцы привозили из Китая христианские тексты (в основном католические), изучая их в рамках западного знания («сохак»). Это было уникальным случаем, когда религия распространялась «снизу», через самообразование. Первая христианская католическая община сформировалась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VIII в. Однако католицизм был встречен в штыки правящей элитой, видевшей в нем угрозу конфуцианским устоям общества. Последовали жестокие гонения, в ходе которых тысячи ранних корейских христиан, включая священников, были казнены. Многие из них почитаются как святые мученики.

Протестантизм проник в Корею в конце XIX в. Е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миссионеры из США и Канады, которые не только проповедовали, но и занимались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и медицин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открывая школы и больницы. Это помогло создать позитивный образ христианства.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1910–1945 гг.) христианские церкви стали центрами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и сопротивления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Многие лидеры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были христианами, что укрепило связь религии с корейским патриотизмом.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и раздела страны на южную и северную части ситуация изменилась.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се религии были подавлены, а христианство практически уничтожено. В Южной Корее христианство, особенно протестантизм, начало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ти, приобретая все больше сторонников. Оно ассоциировалось с модернизацией, образованием и демократией. Христиане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и в движении за демократизацию страны в 1970–1980-е гг.

Сейчас в Южной Корее христианство является самой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религией (по совокупности конфессий — протестантизм, католичество, православие). Всего в стране по данным 2012 г. проживает 15 млн христиан (около 29%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3) Возможно автор имеет в виду так называемый Сахалинский суд — судебный процесс, инициированный Пак Но Хаком и его сторонниками против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н шел с 1975 по 1989 г. 17 июля 1975 г.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Группа по защите иск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ая была затем переименована в «Группу по защите сахалинского суда». В состав этой группы вошли 23 японских адвоката во главе с Касиоки Сироси. Начальником ее канцелярии стал Такаги Кэнъити (адвокат, автор ряда книг и статей по проблема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бывавший на Сахалине в 1985, 1988 и 1989 г.).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руппы был подан иск в токийский суд. Суд закончился ничем, однако по итогу он поднял в японском и южно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вопрос об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перед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В 1978 г.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Японии Сонода Снао заявил: «Хотя официальные власти считают, что это чисто челове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но мы несем человеческую, моральную, политическ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Наряду с другими вопросами компенсации — это одна из послевоенных проблем».

17 апреля 1983 г. было создано «Общество по размышлению о послево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Японии в Азии», основной задачей которого также провозглашалось возвращ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В состав эт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ошли некоторые бывшие члены «Группы по защите сахалинского суда» во главе с Касиваки Сироси. Кроме того, проблемам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нималась группа депутатов японского парламента во главе с депутатом Хара Бунбей. Был создан «Совет депутатов по проблеме южнокорейцев и корейцев, оставшихся на Сахалине».

Юлия Дин, к.и.н.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 РК отправился в зарубежную поездку

17 но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отправился в зарубежную поездку, в в программе которой посещение Объединённых Арабских Эмиратов (ОАЭ), Египет, Южноафрика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ЮАР) и Турция. Это первый визит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на Ближний Восток и в Африку с момента вступления в должность в июн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ход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визита в ОАЭ с 17 по 19 ноября Ли Чжэ Мён обсудил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траны Мухаммедом бен Заидом Аль Нахайя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так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как оборон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и другие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С 19 по 21 но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находился в Египте, где провёл переговоры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траны Абдель Фаттахом ас-Сиси. Он также выступил с лекцией перед студентами Каир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которой рассказал об инициативах Сеула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С 21 по 23 ноября Ли Чжэ Мён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саммите «Большой двадцатки» в Йоханнесбурге, крупнейшем городе ЮАР.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на саммите он расскажет 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ограммах устойчивого роста, борьбы с изменениями климата и решения других глобальных проблем. В рамках саммита Ли Чжэ Мён планирует встретиться с лидерами МІКТА, группы стран среднего уровня, в которую входят РК, Мексика, Индонезия, Турция и Австралия. Заключительным этапом нынешней зарубежной поездк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станет визит в Турцию 24-25 ноября. С президентом этой страны Реджепом Тайипом Эрдоганом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ся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вух стран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ВМС РК и Японии отложены

Военно-морские силы РК уведомили Токио о переносе совместных с Морскими силами самообороны Японии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ых учений, первоначально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на конец ноября. Японская газета «Ёмиури симбун» сообщила об этом 17 ноября со ссылкой 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 двух стран. Как пишет газета, решение о переносе учений может быть связано с отказом Японии принять для дозаправки на авиабазе Наха в префектуре Окинава истребители из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лотажной группы Black Eagles. В качестве причины японская сторона назвала то, что 28 октября один из самолётов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учениях в районе островов Токто. Без поддержки Японии группа была вынуждена отказаться от участия в Дубайском авиашоу. Позднее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из РК отказался от участия в музыкальном фестивале сил самообороны Японии.

ВМС РК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противолодочных учениях

Военно-морские силы РК и США проводят у побережья острова Гуам в Тихом океане совместные противолодочные учения Silent Shark. Они начались 18 ноября и продлятся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в учениях задействованы подводная лодка «Ан Му» водоизмещением 3 тысячи тонн и два патрульных самолёта Р-3. США направила для участия в учениях подводные лодки и патрульные самолёты Р-8А. В ходе учений предстоит отработать поиск и отслеживание подводной лодки условного противника, а также отражение её атаки. Подводная лодка «Ан Му» отправилась с военно-морской базы в Чинхэ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4 ноября, а 16 ноября она прибыла на Гуам. Учения Silent Shark проходят регулярно, начиная с 2007 года.

Hyundai Motor инвестирует 125,2 трлн вон в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их пяти лет Hyundai Motor Group инвестирует 125 трлн 200 млрд вон (86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ИИ), робототехнику и другие перспектив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лан был объявлен вскор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16 ноября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группы Чон Ый Сон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крупного бизнеса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Ли Чжэ Мёном. По данным Hyundai Motor Group, целевой объём инвестиций на 2026–2030 годы более чем на 40% превышает инвестиции за предыдущие пять лет. Промышленная группа продолжит поддержив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страны посредством программ помощи компаниям-партнёрам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отечественной автомоби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ообщил её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 РК растёт число компаний с высокой рыночной капитализацией

С момента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Ли Чжэ Мёна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компаний с рыночной капитализацией, превышающей 10 трлн вон (6 млрд 900 млн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лось почти на 30%.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й фондовой бирж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4 ноября 61 компания, акции которой котируются на бирже KOSPI или бирж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компаний KOSDAQ, имела рыночную стоимость более 10 трлн вон. В конце мая таких компаний было 47. Среди компаний, преодолевших рубеж в 10 трлн вон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производитель материалов для аккумуляторов POSCO Future М,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ая группа HD Hyundai, производитель электрооборудования Samsung Electro-Mechanics и ведущий производитель аккумуляторов LG Energy Solution.

RKI

Сеул предложил Пхеньяну провести военные переговоры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фициально предложило КНДР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с участием военных с целью уточнения границы, разделяющей два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а,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возмож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из-за различной интерпретации точного места прохождения погранлинии.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что Сеул пытается инициировать межкорейский диалог, от которого Пхеньян отказывается, но шансы на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твет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расцениваются как невысокие.

В понедельник, 17 ноя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К выступило с заявлением для прессы, в котором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оно официально обратилось к военному ведомству КНДР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провести консультации с целью подготовки переговоров по уточнению места прохождения линии, разграничивающей Юг и Север Кореи в районе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ДМЗ). Предложение озвучено от имени главы Управления оборонной полит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К. Местом для согласования графика контактов и последующих шагов названо местечко Пханмунчжом в центре ДМЗ.

В качестве причины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доб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в минобороны РК пояснили,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участились случаи, когда военные КНДР нарушали границу в процессе фортификационных и прочих работ, что заставляло южан реагировать - делать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иногда и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ые выстрелы.

В Сеуле отмечают, что подобн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определении точной линии границы назрела уже давно. "По итогам Соглашения о перемирии в 1953 году было установлено 1292 демаркационных знака, которые определяли точную линию. Но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только около 200 из них хорошо видны. Остальные скрыты либо растительностью, либо обветшали, либо пострадали под воздействием природных факторов. Многие из них вообще просто исчезли - их невозможно найти", - поясн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офицер.

О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у военных РК и КНДР есть сво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по поводу того, где проходит граница в районах без знаков, но "часто таки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расходятся". Именно это, по его мнению, и ведет к тому, что северяне периодически заходят на южнокорей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полагая, что они еще в КНДР.

В Сеуле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их предложение объясняется желанием уточнить границу для удобства обеих сторон и устранения возможных причин, которые могут привести к вспышкам напряженности.

Рабочие из КНДР в России — не миф, а новая реальность

Если год назад сообщения о привлеч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отрудников выглядели как экзотика, мало похожая на правду, то сейчас уже более 20 российских компаний начали с ними работать. Об этом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радио «Бизнес ФМ» Полине Федосеевой рассказали слушатели-рекрутеры.

Для сами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возможность работать за границей — как говорят эксперты, «манна небесная», и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специалисты готовы на это. Но попасть в Россию можно, лишь пройдя строгий отбор. Эта система работает на основе квот, устанавливаемых для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групп внутри самой КНДР. Таким образом, желающих много, но едут только избранные. Это своего рода внутренний конкурс: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фильтрует и одобряет кандидатов. Рассказывает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дела продаж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Эксцельсиор» Александр Смирнов:

«Они приезжают партиями, их нужно набирать у себя в стране. Пока они прилетят, пройдут все медицинские процедуры — временное плечо занимает порядка 2-3 месяцев. Сотрудники приезжают надолго. Отток нулевой.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они остаются на 3 года. Сотрудник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сё же дешевле, нежели граждане РФ. Если сравнивать по учёту рабочего времени и по сумме денег, которую нужно будет заплатить нам, как аутсорсинговой компании — наверное, в районе 10% они дешевле обходятся. Но эти 10% — это миллионы рублей, когда мы говорим про объём в 50 или 100 человек».

Ключевые сферы, где задействован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 это агрокомплексы, склады, логистика, ритейл, строительные компании, 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ые заводы — там, где наблюдается острая нехватка линейного персонала. Работают в Московской, Челябинской, Новосибирской и Смоленской областях. Их главн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 дисциплина, исполнительность и усидчивость при выполнении монотонных операций. «30 корейцев работают как 50 русских», — такую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дал один из крупнейших агрохолдингов, говорит Александр Смирнов:

«Если есть у предприятия заявка в 50 человек, то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держало своих коллег из вое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призвав Пхеньян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откликнуться на инициативу. "Снижение воен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инцидентов являются крайне важным делом.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активно отреагирует на наше предложение, направленное на достижение заявленных целей",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минобъединения.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ют,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будет пытать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дан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для инициации более широкого диалога, к которому нынеш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га уже давно призывает Север. Однако, как признают специалисты, шансы на положительную реакцию или вообще на какой-то ответ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крайне малы.

Пхеньян уже с 2023 года официально заявил, что считает Южную Корею просто соседним, враждеб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и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контактов с Сеулом. В июле ж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ладшая сестра вождя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Ким Ё Чжон прямо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их не интересуют никакие предложения и инициативы, которые могут исходить со стороны южан. При этом было отдельно отмечено, что это касается всех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находящихся у власти в РК - как консерваторов, так и демократов. Отметим, что последние обычно настроены на диалог с Пхеньяном, сейчас президентом РК является 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 Ли Чжэ Мён, но Север игнорирует все призывы 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межкорейскому диалогу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переговоры на уровне военных Юга и Севера прошли в октябре 2018 года в Пхеньяне,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в КНДР. С тех пор контактов не было, а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ущественно ухудшились. Всего же за все время с 2000 года Юг и Север провели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разного рода контактов с участием военных - два раунда переговоров на уровне министров обороны, десять сессий уровня генералов и около 40 консультаций рабочего уровня.

Сеул указывает, что только с июня 2024 года военные КНДР десять раз нарушали межкорейскую границу, что требует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опроса о точном ее прохождении. Пхеньян же, игнорируя все инициативы РК по диалогу, взорвал все дороги, ведущие в сторону Юга, построил на границ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фортификационные сооружения и ведет усиленное минирование, явно подчеркивая, что хочет полностью физически отделить себя от Южной Коре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это тот базовый минимум, с которого они готовы начинать. Всё, что меньше, уже не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для них. Кстати, что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 они все любят работать под одной крышей. Им важно социальную историю единства. Даже есть такой момент - проживание необходимо обособленно от других людей. Они живут коммуной. Например, если говорить про нашу компанию, то мы снимаем им дома. Какие-то крупные клиенты могут у себя в общежитии выделить им блок. У них есть свои повара, которые приезжают вместе с ними. Также есть переводчик, который рассказывает им, что делать на участке работы. Поэтому, если просто так привезти, раскидать их по всей стране, они не придут».

При этом далеко не все кадровые агентства готовы нанимать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Замдиректор по продажам кадрового агентства UNITY Александр Лобанов отмечает, что это долгая и дорогостоящая процедура. Их компания подобный опыт не имеет, но рынок анализировала:

«Стоимость одн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ца — примерно от 150 тыс. до 180 тыс. с учётом билетов, обучения, репетиторов, оформления виз, экзаменов и т.д. И время, самое главное, тоже много занимает: пока их найдут, адаптируют, подготовят, привезут, обучат.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низкая текучка: они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ы, высоко исполнительны. В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все затраты в принципе отбиваются. И если компания сама хочет закрыть определённый пласт, у неё есть время, деньги и силы для эксперимента, то этот проек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ожет подойти. Но для кадровых агентств, частных агентств занятости данный кейс не имеет ни массовости на нашем рынке, ни какой-то рентабельности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Эксперты не могут ответить, как именно выплачивается зарплата сотрудникам из КНДР — наличными или на карту, и главное, кто её получает — сами рабочие,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идет ли какой-то процент государству. Как говорят эксперты, корейцы об этом не спрашивают.

(<https://t.me/saramkor>)

Участник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суждений одобрили проект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Участник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суждений одобрили проект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2026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7 и 2028 годов». В з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депутатского корпуса, федеральных структур, ветераны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граждане. За ход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наблюдать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в телевизионном эфире.

Как отметил во вступительном слове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цель мероприятия - обсудить ключевые параметры глав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документа региона на три ближайших года, определить наши приоритеты и убедиться, что принятые реш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т интересам жителей островов.

- Наш главный финансовый документ нацелен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зни граждан, развит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повышение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мы уделяем исполнению поручени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достижен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ей развития до 2030 года. Трехлетний объем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составит 61,7 млрд рублей. В 2026 году на образован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поддержку населения, культуру и спорт направим порядка 109 млрд рублей. Это 53 процента всех программных расходов. Приоритет бюджета очевиден – это помощь участникам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их семьям, безусловное выполнение всех социаль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еред жителями региона. Всего на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в 2026 году запланировано более 20 млрд рублей,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2026 году собственные доход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будут ниж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ие годы. Это связано прежде всего с нестабильной ситуацией на мировом нефтегазовом рынке. Тем не менее, главный финансовый документ сохранил и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За три года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ы 84 объекта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транспортной и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жилья. По мнению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это позволит планомерно повыша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на наших островах, создавать задел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оста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продолжи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Уже началось заселение комфортабельног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на 1500 мест.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будут возведены семь объект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Это три поликлиник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четыре - в Холмске, Углегорске, Макарове и Долинске.

- Доходы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 2026 году прогнозируются в объеме 190,5 млрд рублей. В 2027-ом они составят 201,9 млрд. В 2028 году – 193,6 млрд рублей. Теперь о расходах. В 2026 году они составят 217,6 млрд рублей. В 2027-ом – 230,4 млрд. В 2028 году – 221,1 млрд рублей. Бюджет направлен на концентрацию ресурсов для решения главных задач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 сообщила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Лопатина.

За три года сумма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превысит 196 млрд рублей. В том числе более 15 млрд – на реализац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Участники общественных слушаний в режиме «свободного микрофона» задали разработчикам проекта бюджета множество вопросов. Они касались, например, внедрения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го транспорта, ликвидаци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мер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в регион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а такж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территорий школ. По всем вопросам были даны исчерпывающие ответы.

Юрий Молодцов представлял на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суждениях «Ассоциацию ветеран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 Многие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обсуждаются, касаютс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наших семей. Поэтому я пришел сюда, чтобы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ысказать свое мнение. Из документов вижу, чт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мер поддержки остается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Считаю, это правильный подход разработчиков проекта бюджета, - отметил Юрий Молодцов.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Наталья Коршунов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ила проекту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 В этом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чалась реализация комплекса мер по повышению рождаемости. Выстроена целая стратегия. О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мощь беременным женщинам, молодым матерям,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Вс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ши женщины хотели рожать. И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как следует из проекта бюджета, эта работ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 поделилась

своим мнение Наталья Коршунова.

По словам главного врач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и депутат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Владимира Розумейко, 36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ыделенные в 2026 году на нужды островной медицины, - показатель заботы о здоровье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 Что особенно радует, такой значительной суммы не было никогда. Эти средства равномерно распределены по всем важнейш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Например, у нас в област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оявятся четыре новые поликлиники. Мы продолжим т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иници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Это выездные бригады врачей. Они посещают районы и решают проблему нехватки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местах. Это медицинские администраторы,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хроническим больным, - сказал главврач.

Д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а Иконникова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тот факт, что в проект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сохранены социаль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еред жителями островов.

- Видно,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работает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приоритете поддержка наших бойцов, которые защищают Россию в з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ни и их семьи не останутся без внимания,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Участник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суждений поддержали проект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2026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7 и 2028 годов и рекомендовали региональному парламенту принять его.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тавят на форуме «Бережливые технолог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7 ноября стартовал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орум «Бережливые технологии». В мероприятии, которое собирает экспертов по повышению эффективности, участву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олее 2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Главная цель форума — наладить обмен опытом и развить партнер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убъектами стран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орум уже в четвертый раз проводи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является лидером в России по применению бережливых технологий.

— Наша система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базируется на принципах бережливой культуры. Благодаря применению технологий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35 %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талонов к врачам, с двух месяцев до пяти дней сократился срок выдачи льготных лекарств, были ликвидированы очереди за техн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реабилитации, в десять раз сократилась площадь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Мы стандартизировали бизнес-процессы и продолжаем удерживать лидерские позиции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Таких примеров очень много, и мы готовы делиться наработанным опытом с другими регионами. У нас выстроена система, которая, прежде всего, работает в интересах людей и для решения задач, поставленных президентом, —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ступая перед участниками форума.

В ходе пленарного заседания партнеры форума рассказали о тенденциях по внедрению технологий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России. С докладами выступили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Госкорпорации «Росатом» Сергей Обозов и руководитель Мастерс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Сенеж» Олег Попов.

— Именн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запустить проект «Бережливое и ускоренное развитие». В него вошли четыре региона — помимо Сахалина, это Калининградская, Нижегородская и Тульская области. Интегратором стала Мастерская управления «Сенеж», где мы собирали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и тестировали их в субъектах. Сейчас сформировано уже 40 стандартов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к проект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1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дальнейшем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которые были сформированы здесь, будут тиражироваться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Олег Поп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здано 40 образцовых учреждений, где применяются бережливые технологии. Они охватывают самые разные отрасли — от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до ЖКХ. В этом году на форуме впервые открыта секция «Эффект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туризмом»,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делится опытом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 Мы внедрили на сайте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сувенирную лавку. Теперь гост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 нужно искать товары в разных торговых объектах: весь ассортимент доступен онлайн, совершить покупку можно в несколько клик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мы не понесли никаких рекламных расходов, а свели бизнес и туристов в одной точке. Через сайт мы подклю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упки билетов и бронирования гостиниц у партнеров. Также был добавлен раздел «Туризм без барьеров» для поддержки инклюзивного туризма и создан чат-бот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Умный ассистент готов рассказать о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обо всем, что важно путешественнику, — по-

делилась участница форума,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Виктория Ступи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орум «Бережливые технологии» проходил 17-18 ноября. Участникам презентовали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управлению в сфера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и образован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еализацию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Также гостям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работу региональной цифровой платформы по автоматизации кадровых процессов и решения региона в области применен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БПЛА.

Студгородок СахалинТех преобразят дизайнеры и художник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учил ключи от комнат еще 50 ребятам и обсудил с новоселами оформление внутренних помещений.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планируется обустроить арт-резиденцию, а в коридорах — добавить красок серым стенам.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концепции общих зон в корпусах привлекли архитекторов и дизайнеров. Своими идеями и эскизами делятся со студентами университета.

— Давайте вместе сделаем лучший студгородок в России, чтобы каждый здесь чувствовал себя частью вдохновляющего и твор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реобразим безликие стены в пространство, где ребята будут играть на гитаре, петь песни, проводить КВН, устраивать молодежные тусовки. Вместо казенных помещений нужно создать настоящий дом для общения и отдыха в уютной атмосфер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уководитель архитектурного бюро «Функционалист» Дарья Старченко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собираются сделать арт-резиденцию. Здесь должны появиться кофейня, ярмарка местных мастеров, зона для настольных игр и уголок для чтения. Ребята смогут устраивать кинопоказы, концерты и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 На каждом этаже в корпусах есть общие зоны, где молодежь будет общаться и заниматься самоподготовкой. Эти пространства предлагается оформить в нейтральных тонах, в стилистике передового кампуса. А в коридорах хотим добавить цвета. Они пока напминают серые прямоугольники. Студенты активно приносят свои наброски и высказывают предложения, — поделилась Дарь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черкнул: самое главное — чтобы дизайн нравился ребятам и им было комфортно в новых стенах.

Техническое заселение студгородка началось с 5 ноября. На сегодня ключи получили уже 150 человек. Первыми заехали волонтеры. Их задача — оценить удобство новых корпусов и помочь другим освоиться на новом месте. В число таких добровольцев охотно записался третьекурсник, будущий учител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Никита Семерин.

— Раньше жил в четвертом общежитии на Пограничной. Там нормальные условия, но это просто небо и земля! Разместились на восьмом этаже, нам повезло с 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ой. Вид на «Горный воздух» — будем встречать рассветы и любоваться зимой подсвеченными трассами. При заселении учли наши пожелания. Переехали с ребятами, с которыми жили в одной комнате и сдружились. Нам сказали: без проблем, все для вас. Оказавшись в новом студгородке, еще больше захотелось продолжать учиться на Сахалине и потом строить карьеру, — рассказал о своих впечатлениях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 настоящая гостиница для студентов. В каждой секции проживают всего четыре человека. В распоряжении ребят — две комнаты, раздельный санузел с душевой и кухня-ниша.

По просьбе волонтеров в корпусах появился беспроводной интернет.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уже работает спортзал. Скоро должны открыть медицинский блок и прачечную самообслуживания.

Напомним, студгородок рассчитан на 1500 мест, заселение будет идти поэтапно. После полного ввод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ниверситет закроет потребность в местах проживания для иногородних студентов, а также науч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 один из двух объектов передового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Второй —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на 2400 студентов. Там разместятся учебный корпус, научно-лабораторный блок с технопарком, библиотека, зал собраний на 700 мест, общественно-делов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даже оранжере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завершиться в 2026 году.

Инициатором проекта создания кампус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ступ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у удалось заручиться поддержкой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в короткие сроки нач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ередовой университет будет готови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кадры для самых перспективных отраслей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и. Среди них — нефтегазовая отрасль, новая энергетика, экономики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транспорт и логистика, беспилотные системы,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한인 기념사업과 한·러 교류 활성화

KIN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최상구

(2면의 계속)

2. 진상 규명 및 미해결 과제들에 대한 조사

사할린 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첫 단계는 아직도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히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입니다. 2015년 활동을 종료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접수된 피해 중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미결 과제 283건 가운데 사할린 관련 과제는 22건이었습니다. 사할린 강제동원 문제가 포함될 수 있는 과제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집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에서 비밀 해제된 문서들을 통해 새롭게 밝혀지는 태평양 전쟁 시기 사할린 한인 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유해 조사 활동이 절실합니다. 현재 사할린 한인협회가 조사에 들어간 미즈호 마을의 피해자 유해 발굴 작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하여 2022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 특별보고관)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및 인도법 위반과 관련한 국가기록물에 대한 완전한 접근과 피해자 중심의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해방 이후 생활사 연구 및 아카이빙 사업

해방 이후 남사할린이 소련으로 편입된 과정에서 한인들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있으나, 해방 이후 소련 및 러시아 연방 시기까지 사할린 한인들의 생활사를 정리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며, 사할린 지역별로 연구된 내용도 매우 적습니다. 사할린 한인의 명예 회복 및 역사적 조명을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사를 포함한 총체적인 역사를 연구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시넵스키(Вишневский Н.В.)의 저서 마카로프 한인 -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북방의 얼”은 선구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위해 사할린 한인 구술 자료 수집 활동 및 아카이빙 사업이 시급합니다. 고려의 1세 생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을 다양하게 남길 수 있는 이들을 선정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DB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이 요구됩니다.

II.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반의 기념사업 추진

1. 사할린 동포법 기반 기념사업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은 국가가 사할린동포에 대한 명예 회

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할린동포법은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기념사업을 통해 사할린 동포의 명예회복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2021.11. 시행)에 규정된 기념사업은 5가지입니다:

1. 사할린동포 관련 연구·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2. 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문화의 보존 사업
3. 사할린동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사할린동포를 위한 추모 사업
5. 그 밖에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이와 관련하여 2022년 기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결과, 사할린동포, 유족들은 교육 및 홍보 사업에 가장 높은 선호도(호응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사할린 동포 문제가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문제 인식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풍부하게 하려면 그전에 사할린 동포 관련 연구와 사할린 동포 역사 보존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시행과 충분한 예산 지원을 공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III. 기념사업을 통한 한-러시아 교류 활성화 방안

1. 다각적인 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할린 한인의 역사는 일본 제국주의, 소련, 그리고 러시아 연방 시기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 한자, 러시아어 등 다각적인 자료 접근과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할린 한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및 학술활동 영역에서, 한국, 러시아, 일본의 연구자들 간의 긴밀한 협의와 공동 연구를 위한 교류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러시아 소장 자료 접근 및 조사는 외국인 연구자에게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연구자들과 협업을 통해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효과적일 것입니다.

2. 문화·교육 콘텐츠 제작 및 상호 이해 증진

사할린 한인에 대한 연구와 조사의 결과물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 및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양국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판 및 창작 지원: 사할린 한인에 대한 서적 출판(구술 기록, 전문 연구서, 대중서, 소설), 다큐멘터리 제작, 예술 작품 및 전시, 공연 창작과 상연 등 여러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영주귀국 동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구술기록 출판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사회에 사할린동포의 이야기를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양국에서 이미 출판된 서적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언어로 번역출판하는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 현지 동포 매체 지원: 한국에서는 새고려신문 및 우리말 방송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의 디지털 아카이빙도 실시하여 사할린 한인 역사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차세대 교육 및 교류: 사할린 한인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출판 및 창작 지원으로 축적된 콘텐츠들을 사할린 현지와 한국 양쪽에서 알릴 수 있는 사업들이 바람직하며, 특히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국-사할린 상호 교환 수업 지원이나 현지 아동 예술 학교인 <에트노스>와 같은 곳에서 민족 문화 계승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방안도 필요합니다.

3. 현지 역사기념 공간 마련 및 교류 사업 활성화

사할린 현지에는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탄광, 제지공장 등 일본의 강제동원 현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제동원 현장 보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옛 국경지대 스미르니히를 방문했을 때, 아주 인상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 소련군과의 전투가 있던 곳이나 일본 경찰서, 일본군사 시설들에 대해 설명하고, QR코드 지도상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한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게시판을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현장들(옛 탄광, 제지공장, 벌목장 등)에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게시판은 러시아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도 설명을 하고, QR코드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로 연결하여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됩니다. 이러한 현장 보존은 과거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보존 사업은 사할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풍부한 먹거리 등과 함께 한국에서 사할린을 찾고 교류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역사 공유를 통한 평화적 관계 지향

사할린 한인 기념사업은 한인동포의 역사적 상처 치유, 공동체 정체성 기반 확립, 한러관계 속 한국인의 역사적 역할을 조명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추모를 넘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세대와 한러 공동체가 소통하는 장으로 발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KIN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 교류와 정부 협력, 사할린주정부의 적극적 파트너십, 그리고 지속가능한 예산 및 정책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120여 시민단체가 직항 노선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직항노선 재개는 교류와 협력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KIN은 사할린 한인과 관련한 문제는 영주귀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사할린 강제 동원을 포함한 이주의 역사에 대해 한국과 러시아가 공유할 수 있는 역사 인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할린 동포들을 잊혀진 존재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조국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그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후세대에게 당당한 역사를 전승해야 합니다.

Поддержка сахалинских защитников и семей с детьми останутся основными приоритет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Единой России»

34-я конференц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состоялась 15 но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олее двух сотен партийце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подвели итоги работы в 2025 году и обозначили задачи на следующий.

Открыл конференцию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оторый также является секретаре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Единой России». В 2026 году партии предстоит главный экзамен – выборы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черкнул: избиратели будут судить по делам и результатам. Цель 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и – не просто победа, а реализация конкретны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меняют жизнь людей к лучшему.

– Наш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бозначил приоритеты – это поддержка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их семей, а также улучшение ситуации в демографии. Продолжаем снабжать воинов техникой, снаряжением и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их родных, которые ждут защитников дома с победой. Вернувшимся бойцам помогаем найти себя в мирной жизни, повысить квалификацию, трудоустроиться и занять достойное место в обществе. Это задача номер один. Второй приоритет – демография. Год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продлен.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комплекс мер, чтобы помочь женщинам исполнить мечту о пополнении в семье и успешно совмещать карьеру и заботу о детях. Главным девизом в работе остается: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Партия власти должна помочь пациенту, который остался без лекарства, инвалиду – если он не получил коляску или другие средства реабилитации. Должна позаботиться о том,

чтобы в каждом доме был аккуратный подъезд и сухой подвал. Бороться за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среды, чтобы человеку хотелось связать свою жизнь с Сахалином и Курилами. Тогда по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 И на фронте, и на выборах,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вручил также партийные билеты и награды членам «Единой России». Медалью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фронту» был отмечен депутат Госдумы, член комитета по обороне Георгий Карлов. Народный избранник ведет активную законодательную работу по укреплению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и вносит большой личный вклад в поддержку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Диплом 1 степени и призовой сертификат на сумму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за победу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школьных музеев «Знать, чтобы помнить» передали Виктории Стебеновой, директору школы Горнозаводска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Также единороссов поощрил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з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Диктанта Победы».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Георгий Карлов рассказал об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законотвор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риоритетах при формировании бюджета страны на трехлетний период.

– Все т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которые были взяты перед людьми, всегда исполнялись безукоризненно. Так должно оставаться и впредь. Необходимо обеспечива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а,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и, конечно, оказывать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мощь бойцам, которые рискуют своей жизнью на поле боя. В зоне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также вопросы поддержки материнства и детства. В России возродилось понятие «студенческая семья». На наших глаза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стет передовой кампус Сахалин-Тех. Уже идет заселе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общежитий, где студенческие семьи будут жить в самых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ях. Мы смело заглядываем в будущий год. Есть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справедливой, открытой и честной победы на выборах. У нас сильный Президент, сильный губернатор, дела которого говорят сами за себя, и очень сильная команда – команда победителей, – сказал депутат Госдумы.

К участникам конференции обратился также сенатор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Он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открытости, встреч с избирателями и поддержки первичных отделений партии, которые ближе всего к людям.

– Нужно вовлекать в партийные проекты молодежь и делиться успешными практиками. Сила «Единой России» – в единстве центра и регионов.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текались обращения людей. На их основе потом формируются федеральные законы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 отметил сенатор.

В ходе партий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двели итоги конкурса «Народный депутат».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работы с избирателями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депутаты Собрания Ани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Андраник Авенян, Алена Зайцева и Павел Ромахин, а также Денис Гага (Собрание Долин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 Галина Кудинова (Собрание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Также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стали известны имена новых член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совета: Юрий Болдов, Александр Гринберг, Сергей Гурьянов, Сергей Жигалкин, Константин Истомин,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Елена Парубец и Александр Тугарев. В президиу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совета вошли Александр Гринберг, Ирина Киселева и София Ковалева.

Отметим, что Сахалин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Единой России» объединяет 18 местных отделений и 277 – первичных, 4675 членов партии и 1554 сторонни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풍선 샤워, 유즈노사할린스크 쇼핑몰 생일 축하에 수천 명의 방문객 유치

11월 16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최대 쇼핑 오락 센터인 '시티 몰'의 생일 축하 행사로 주변 지역에서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교통 체증을 겪었다.

행사의 주요 짝짝 이벤트는 엄청난 경품 추첨이었다. 주최 측은 3층 홀의 천장에서 16,000개의 풍선이 떨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중 4분의 1의 풍선에는 상품권, 기프트 카드, 쿠폰 및 기타 즐거운 짝짝 선물이 숨겨져 있었다. 이 기적을 기대하는 인파가 행운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쇼핑 센터로 끌어 모았다.

"홀은 원래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풍선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손님들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들면서 혼잡이 발생했다"라고 경품 추첨 참가자가 말했다.

쇼핑센터 외부에서도 이 못지않게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다. '시티 몰'로 접근하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건물 주변에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도 퀘스트나 다름없다. 교통 정체가 정말 엄청나다. 오늘 도시 전체가 여기 모인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한 방문객이 소감을 전했다.

'시티 몰' 쇼핑 오락 단지는 16번째 생일을 기념했다. 경품 추첨 외에도 손님들을 위한 축하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으며, 무작위 손님들에게 2천 개의 선물이 전달되었다.

Дождь из шаров привлёк тысячи гостей на день рождения ТЦ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авку и многокилометровую пробку создал 16 ноября ажиотаж вокруг дня рождения крупнейше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оргово-развлек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Сити Молл».

Главным сюрпризом вечера стал грандиозный розыгрыш: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обещали, что с потолка холла на третьем этаже упадут 16 тысяч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При этом в каждом четвертом шаре скрывался подарок — сертификаты, подарочные карты, купоны и другие приятные сюрпризы. Ожидание чуда привлекло в торговый центр толпы желающих испытать удачу.

«Зал был и без того сильно переполнен, а когда шары начали падать, гости кинулись их ловить — возникла давка», — рассказала участница розыгрыша.

Не менее сложная ситуация сложилась и за пределами торгового центра. Подъехать к «Сити Моллу» оказалось настоящей проблемой: у здания образовалась многокилометровая пробка.

«Выехать отсюда — целый квест. Пробка просто огромная, такое ощущение, что весь город сегодня здесь»,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дна из посетительниц.

ТРК «Сити Молл» праздновал свой 16-й день рождения. Кроме розыгрыша, для гостей была подготовлена праздничная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а также две тысячи подарков вручили случайным гостям.

연방보안국: 캄차트카 주유소에 방화 시도한 사할린 주민, 현행범 체포

러시아 연방보안국 캄차트카 관리국은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의 주유소 방화 미수 사건에 대해 '캄차트카-인포' 통신사에 알렸다.

원문에 따르면, 사할린 주민(40세)은 전화 사기범의 피해자였다. 이 남성은 처음에는 사기꾼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송금했고, 그 후 사기꾼들이 그를 파괴 공작원 자금 지원 혐의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허위범죄에 연루될까 두려워 진짜 범죄를 저지르는 데 동의했다.

"예비 자료에 따르면, 1984년생 사할린주 주민은 왓츠앱과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사기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잃었다. 다음 전화 통화에서 남성에게 그의 돈이

우크라이나 측에 송금되었다고 알렸다. 가해자는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 사실을 범 집행 기관으로부터 숨기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카의 주유소에 방화를 저지를 것을 제안했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범죄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고 캄차트카 관리국 러시아 연방보안국 대표가 언론에 밝혔다.

이 사할린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사보타주 미수 혐의로 형사 사건이 개시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УФСБ: житель Сахалина был арестован при попытке поджечь заправку на Камчатке

О попытке поджога АЗС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е-Камчатском региональное УФСБ России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у «Камчатка-информ».

Как пояснили в первоисточнике, 40-летний сахалинец стал жертвой телефонных аферистов. Сначала мужчина перевел мошенникам немалую сумму денег, а после его начали шантажировать статьей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диверсантов. Из боязни быть уличенным в вымышленном преступлении, житель острова согласился совершить преступление реальное.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ж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984 г. р., в ходе общения с мошенниками в мессенджерах WhatsApp и Telegram лишился крупной суммы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Во время очередного звонка мужчине сообщили, что его деньги отправлены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е. В целях сокрытия от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информации о факт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Украины и возврата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звонивший предложил совершить поджог АЗС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е-Камчатском, на что гражданин согласился. Однако преступление не было доведено до конца по независящим от нег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 сообщили в СМ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УФСБ России по Камчатскому краю.

Сахалинца арестовали и завели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за покушение на диверсию.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дет.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полугодие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Лужники

М²

Эконом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